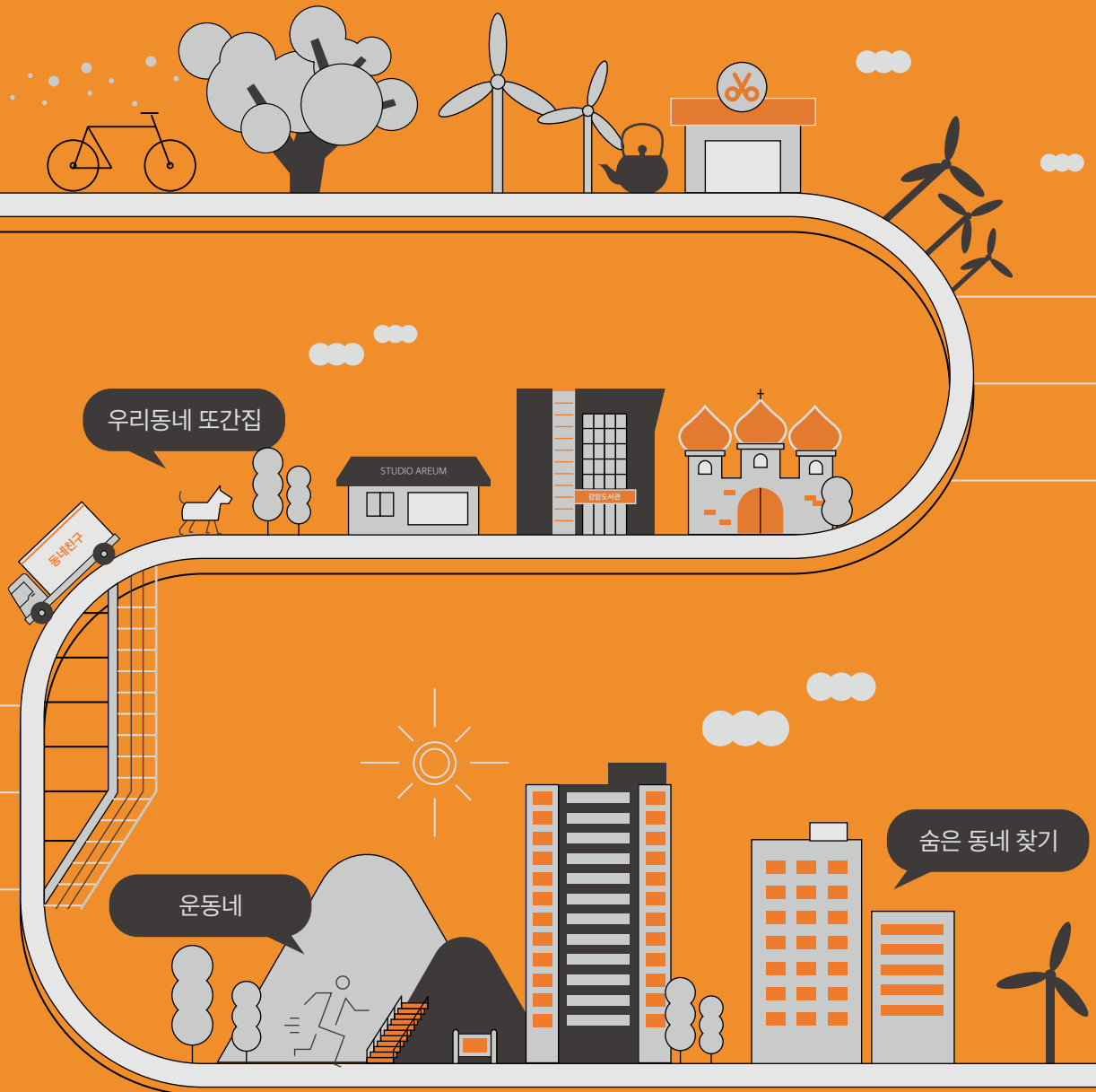


2024. 새구 기록사업

# 동네친구 : '새' 짝인 매거진



2024. 새구 기록사업

# 동네친구 : '새'책인 매거진



# 소개의 말

## 2024.서구 기록사업 <동네친구: '서'적인 매거진> 소개

2024년, 서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동네친구: '서'적인 매거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 서구 기록사업 <동네친구 : ‘서’적인 매거진>이란  
① 인천 서구적인 이라는 뜻과 ② 사적인(개인적인)의 합성어  
로 서구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서’적인 이야기를 기록으로 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세 가지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구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의 로컬 매거진으로  
엮어냈습니다. 서구 주민이 직접 지역 곳곳을 탐방하며 서구의  
매력적인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를 담아내어  
더욱 생생하고 특별한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 1.우리동네 또간집

서구민들이 사랑하는 단골 가게와 공간을 찾아가 그 속에 담긴  
사람들과 그들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했습니다. 익숙하지만 특  
별한, 서구만의 소중한 장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2.운동네

서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운동과 운동에 담긴 서구민의  
삶을 에세이로 담아 건강하고 활기찬 동네 문화를 소개했습니  
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운동을 매개로 이어지는 서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 3. 숨은 동네 찾기

골목길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까지, 서구의 숨은 보물 같은  
장소들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오래된 흔적 속에 깃든 이야기  
들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서구를 조명했습니다.

<동네친구: '서'적인 매거진>이 우리 동네의 특별함을 함께 발견  
하는 계기가 되고, 서구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서구를  
잘 몰랐던 이들에게는 그 매력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거진이 단순한 정보 책자를 넘어, 서구를 사랑하는  
동네친구들의 소중한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 contents

## 2024. 서구 기록사업

## 동네친구 : '서'적인 매거진

### 02 소개의 말

### 04 우리동네 또간집

착한 컷트, 착한 어울림  
MZ세대 청년 사업가의 PT샵 막전막후(幕前幕後)  
Review :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만나다  
오늘 여기 취미 테라피, 아름 아뜰리에  
Review : 생각보다 더 좋았던 인터뷰 글쓰기  
가좌1동만의 매력, 이주민들의 보금자리 ‘우마르파룩 이슬람사원’  
가좌 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곳  
Review : 우리는 모두 이웃이에요  
당신의 지금을 예술로 채워줄 ‘ㄹㄹㄹ’  
Review : 인터뷰 전과 후, 달라진 나

### 48 운동네

‘능내 공원’에서 바른 자세로 걷기  
‘아시아드 경기장’ 황톳길은 건강이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달리는 이유  
길동무 ‘호봉산’에서  
의지 부족도 이 운동은 할 수 있더라  
승학산을 오르며  
여성 혼자도 안전하게! 단시간에 맨발의 부루마불 여행

### 76 숨은 동네 찾기

당하공원 나진포천  
함께 살아온 나무  
쉬어가세요  
마음의 쉼터  
빛나는 나를 만나보는 곳  
나의 ‘서’적인 공간

착한 컷트, 착한 어울림  
MZ세대 청년 사업가의 PT샵 막전막후(幕前幕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만나다  
오늘 여기 취미 테라피, 아름 아뜰리에  
생각보다 더 좋았던 인터뷰 글쓰기  
가좌1동만의 매력, 이주민들의 보금자리 '우마르파룩 이슬람사원'  
가좌 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곳  
우리는 모두 이웃이에요  
당신의 지금을 예술로 채워줄 '츠츠츠'  
인터뷰 전과 후, 달라진 나



# 착한 컷트, 착한 어울림



인천 서구 서곶로 345 서관빌딩

**인터뷰이** 유선영 미용사, The 착한컷트 대표

**인터뷰어** 김영창 수필가, 생활사 기록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바로 'The 착한컷트' 미용실인데요. 사장님의 경영철학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를 숙이며) 저는 인천 서구에서 '착한 컷트'를 운영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가게는 저렴한 가격에 컷트와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제가 '착한 컷트'에 방문했던 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곤 하는데요. 사장님은 처음 어떻게 이 미용 업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머리를 넘기며) 사람들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도 제 나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용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가게 운영이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런 경영 방침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싶었어요. 이발비가 부담될 수 있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를 꾸미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고요.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두 손을 모으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의 저렴한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착한 컷트'는 단순한 이발소를 넘어서 지역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 가게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발소가 아닌, (눈을 크게 뜨며)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꼭 이발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유롭게 오셔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편하게 쉬시면서 이웃 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주변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창밖을 바라보며) 저희 가게를 찾으셔서, 머리도 자르시고 커피도 드시면서, 서로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대화를 나누고 가세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환하게 웃으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자주 오시는 한 어르신이 기억에 남아요. 홀로 사시는데, 저희 가게에 가끔 오셔서 커피를 드시면서(미소를 지으며) “사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하고 물어도 봐주시고,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가세요. 저희 가게가 그분에게 (눈을 크게 뜨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뻐요.





‘착한 컷트’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 저희 가게에서 미소를 머금은 채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살짝 웃으며)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어렵지만, 처음 세운 원칙을 지키고 싶어요. 돈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지탱시켜 주고, 미용 학원생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며 (손님 머리를 감겨주는 직원을 바라보며) 인건비 지출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고객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이 저를 보시고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고(창밖을 바라보며), 가시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슴에 손을 얹으며) 편안하게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착한 컷트’를 찾는 손님들과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날씨나 동네 소식,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죠. 손님들이(기다리시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최대한 잘 들어드리려고 노력해요.

손님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손님들의 이야기를(눈을 크게 뜨며)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경청해 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손님들이 이발하시지 않으면서도,  
이 가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진심이(가슴에 손을 얹으며) 통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더라도 편하게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점이 손님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가게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분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문턱이 낮은(출입문 바닥을 바라보며) 동네 사랑방으로써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착한 컷트’가 계속해서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세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게가 주민 자치 교실처럼 지역 사회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착한 컷트’라는 사장님이 만드신 사업장을 통해,  
사장님이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꿈이 무엇인가요?

이곳에서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힐링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착한 컷트’를 찾으시는 모든 손님에게 작은 행복을 전하는 공간으로 남고 싶어요.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착한 컷트’를 찾았던 첫날처럼,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험난한 세상을 사시면서 힘드신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모처럼 자기 외모도 착한 비용으로 가꿔도 보시고, 사장님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삶에 지친 마음도 힐링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도 문전성시를 이루셔서 제2, 제3의 ‘착한 컷트’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대박이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터뷰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장님의 착한 마음씨에 한 사람의 고객으로서 늘 감사드립니다. “착한 컷트, 화이팅!”



# MZ세대 청년 사업가의 PT샵 막전막후(幕前幕後)



## 인터뷰이 김한길

“오늘의 운동” PT 가맹점 대표역임,  
사랑의 열매 HONOR SOCIETY(어너 소사이어티) 인천 141호

## 인터뷰어 김영창 수필가, 생활사 기록가

- 1) 사랑의 열매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로 사회지도자들의 모임.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창업자님의 성공을 기원하며 인터뷰하는 동안 호칭  
을 ‘창업자’로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창업자님

네. 저도 제 재창업이 성공하리라 저도 굳게 믿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과 배려(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가는 산마다, 산어귀의  
정경이 가장 좋고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산어귀  
에 선 심정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창업자님께서 PT  
샵을 오픈한 첫날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  
요? PT샵 오픈 첫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첫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순간은 마치 제가, 한 산  
의 정상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등산  
하다 보면 초반엔 길이 평탄해 보이지만, 점점  
숨이 가빠지고 땀도 나고, 마음 한편에선 '이걸 끝  
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제가  
PT샵을 처음 열었을 때도 그랬어요. 솔직히 두려  
움이 앞섰죠. 자본도 부족했고, 경험도 많지 않았  
거든요.

하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아랫마을이 한눈에 내려  
다보이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풍경을 보는 것  
만으로도 다시 힘이 나고, 오르기를 잘했다고 느끼  
게 되는 찰나요. 가게 문을 연 첫날, 저는 그 아랫마  
을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힘들었으나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차  
고 설레었죠. 아직 정상까지는 멀었지만, 그 첫걸  
음 자체가 저에겐 큰 의미였지요.

처음 PT샵을 열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잠시 먼 곳을 바라  
보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과 동업을 시작했는데  
요. PT샵 근처 아파트와 반경 1km 거리에 있는 곳  
에 오픈 소식을 전단지랑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밤  
낮없이 홍보했는데요. 한 달 정도? 정말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기존 고객들  
이 오셔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겨내기 어려웠  
을 거예요.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본인의 강점이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발전의 동기는(잠시 머뭇거리다가) ‘열등감’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느낌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해소할지에 집중하는 편  
입니다.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를 떠나 어떻게 도  
달할지 집중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나  
또 집중할 때는 주변을 미처 살피지 못한다는 단점  
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나 원칙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성공적인 경영을 해왔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잠시 망설이다) 늘 과거를 생각하  
고 제가 미흡한 부분과 잘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  
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 코로나 팬데믹이 PT샵 운영에 구체적으로

###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 당시 저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반짝이며) 코로나 팬데믹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맞춰 전략을 세워 홍보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 더 운영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 그렇게 몇 년 동안 힘들게 늘려오신 사업장을 하나, 돌씩 폐업 결정을 내리게 된 순간, 어떤 감정이었나요?

폐업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둔 파트너와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한 채 폐업 결단과 행동을 미뤘던 것에 대하여 폐업하고 나서 비로소 나 자신을 원망했었습니다.

## 아, 그러셨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자영업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두 손을 모으며) 고객들의 소비성향이 달라지고,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적응하며 환경 변화를 만들어 가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잠시 머뭇거리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직후에는 시장에 유동성은 많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한숨을 내뿜으며) 점점 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객들은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었고요. 또 가게의 현금 유동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한 번에 고액을 결제해야 하는 PT 업종 특성상, 자연스럽게 수요는 낮아졌고, 경쟁은 치열해짐을 절실하게 체감했습니다.

### 지금 휴식기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지내시는지요?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은 아직도 더 많은 사회 경험이나 사업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앞으로 사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일들로 시간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인들을 상대로 간헐적인 무료 마케팅이나 사업 컨설팅을 하며 휴식하고 있으며, 시장 변화와 사업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PT 관련분야나 인체와 의학, 물리치료학 등 관심 있는 교육을 받거나 관련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대로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이

### 얼마나 힘든가요?

사업하면서 (잠시 창밖을 보다 시선을 맞추며) 어려웠던 점은 업체들과 미팅할 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업체들과 첫 미팅을 할 때 “진짜야? (당신이) 능력이 돼?”라는 식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사업상 관계를 맺고, 모두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 자영업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사회적 지원이나

###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나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적잖은 지원금을 받았으나 주변 관장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원금은 유지하는 정도의 도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업종별로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인 피드백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같은 시기를 보낼 20대 청년들에게는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성공하기 위해 성실하게(목소리에 힘을 주며) 꾸준히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면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본인 인생에 있어 정말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 주변에서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에 실패 또한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일이든 성공 또는 실패처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주변에서는 다행히도 뭘 해도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두 손을 모으며) 달라진 건 없습니다.

## 창업자님께서 재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정식적으로 다시 꾸려갈 때의 제 열정이 두렵습니다. 성격이 성취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쳐서 노력하거든요. 과거 사업을 하며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이루기 위해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정말 괴로웠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경험이 부족했었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이나 방식이 있나요?

늘 해오던 대로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직영화하여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요. 고객이 느낄만한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써서 좀 더 완벽하게 갖출 예정입니다. 종전 사업방식과 달라지는 건 이 모든 걸 혼자 해내기보다는 전문적인 인력조직을 구축해서 이뤄낼 것 같습니다.

본인 경험을 통해 MZ세대 창업자들에게 어떤 점을 조언하고

싶으신가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직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조금 더 돌아가게 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재기하려는 동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더 많은 PT샵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경험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고개를 숙이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판단은 본인 선택의 몫입니다.

자영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접 현장을 관리하고 고객들을 직접 케어할 때는, 고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보고 보람을 느끼고는 했는데요. 지점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직원들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업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늘 함께 해주는 직원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지만, 믿음과(목소리에 힘을 주며) 신뢰입니다.

20대 자영업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20대 때에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경험 미숙이 본인 판단을 더 어렵게 하기도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궁지로 몰아 마지 절벽 끝에 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 아닌데 말이죠, 조금 더 멀리 보고 생각하려는 행동과 성실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경험이 향후 창업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제 입에 풀칠하는 것과 눈앞에 있는 걸 계산하기 바빠서 많은 걸 놓쳤어요. 하지만 이것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할 20대 친구들이 저를 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들만 흡수해서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많기에 성공과 실패에 의미를 두지만 말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며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창업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MZ세대에게 본인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까지 떠올리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업자님이 새로 준비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MZ세대의 창업 선두 주자로서, 새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글로벌 리더가 되시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만나다

김영강

저는 PT샵 체인점 ‘오늘의 운동’ 대표였던 MZ세대의 올바른 리더,  
김한길 님과 착한 가격의 ‘착한 컷트’ 유선영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 모습을 보며  
인터뷰 내내 크게 감동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양지와 음지를 만들어 놓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높은 물가와 자영업자의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 80% 이상이라는 척박한 자영업 시장에서,  
두 분의 인터뷰는 현실 경제의 성장 속도를 쫓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남들을 배려하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비록 속도는 더딜지라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인터뷰이님들의 바른 생각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고,  
저 또한 제2의 고향인 ‘인천 서구’라는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진정성 있는 삶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더 성실한 삶으로 지역 사회와 후세가 누릴 기본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서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봉사와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선한 길라잡이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MZ세대 경영의 선두 주자이자 바른 삶으로 묵묵히 사회를 빛내고 계신 인터뷰이님들의  
올바른 생각과 바른 삶의 방식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며,  
이처럼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모든 분에게 전해주는 착한 사업체가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 오늘 여기 취미 테라피, 아름 아뜰리에



‘아름 아뜰리에’는 서구 가정동에 자리한 공방으로, 천연 비누, 화장품 등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완제품 구매도 가능한 공방입니다. 저도 인터뷰 진행 전에 CP 비누 만들기 일일 수업을 들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서구 주민이자, 열정적으로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는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공방으로, 인터뷰하는 중간에도 이웃 어머님께서 비누를 사러 오셔서 인터뷰를 잠시 중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으로 자리한 듯 보이는 공방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색다른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름 아뜰리에’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 윤 경 아름 아뜰리에 대표

**인터뷰어** 김예은 수필가

인천 서구 서곶로 16 한신그랜드힐빌리지 한신종합상가 B103호, 14번 버스 정류장 하

안녕하세요, 사장님 자기소개와 공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동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윤 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름 아뜰리에’ 공방에서는 천연 비누, 천연화장품, 석고, 공예, 입욕제, 샴푸 바, 규모토 케어 아트 같은 제품을 도와주는 제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여기서도 자격증 수료 반 수업과 일일 강좌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가정동에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총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같은 건물 위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름 아뜰리에’ 공방을 오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여기서 자랐어요. 여기 한신 단지에서 살아서 처음엔 아이들 미술을 가르쳤어요. 학원을 내기도 했고 다른 일도 하다가 나이 먹기 전에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키우는 말티즈 강아지가 피부병이 많은 건종이라 적절한 샴푸를 사용해야 하는데, 성분 표시를 보니 대부분 향이 강하고 사람에게도 안 좋은 종류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직접 배워서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게 됐어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만 배우려고 했더니 그렇게 배워선 협회에서 자격증이 나오지 않아 아로마 등 연계된 걸 더 배우게 됐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직접 만들어 보며 제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고, 피부가 막 뒤집히는데 재미있었어요. 저한테 맞는 화장품도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공부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게 됐어요. 이후엔 집에서 방 하나를 비워서 거기서 비누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어봤는데 지인들에게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께서 공방을 오픈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공방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지금보다 더 작은 공간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더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서구에서 공방을 운영해 오셨는데요, 혹시 처음 오셨던 손님이 기억나시나요?

혹은 가장 인상 깊었던 수강생이 있으셨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처음 저한테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하셨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선교를 목적으로 비누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던 분이었어요. 제 첫 제자이기도 하고 비누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분이예요. 지금도 서로 연락 주고받고 가끔 제가 SNS에 예쁜 비누 사진을 올리면 ‘선생님, 저 가서 만들어도 될까요?’하고 공방을 찾아주시는 분이예요. 지금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분은 제가 위에서 공방할 때부터 계속 저한테 배우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본인데 지금은 검암동에서 직접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저보다 재주도 많으셔서 더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세요. 제자이지만 저도 모르게 더 의지하게 되는 선생님이에요. 마음으로. 그 선생님도 힘들 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서 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만들면 가져다주기도 하고요. (웃음) 그렇게 될 하면 꼭 갚아주는 분이라 저도 출강 때 연락드리고, 선생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주시는 그런 분이라 제일 편하고 지금도 좋고 그래요.





저도 피드 글을 좀 봤었는데 사장님이 병원에 가셨던 사진들과 사장님 건강에 관한 글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수업하면서 봤었지만 자주 서 계시고 설거지도 계속 해야 하니까 손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실 것 같은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어요. 루푸스라고 하는데,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해요. 조금 피곤하면 몸이 많이 붓고 염증이 몸 안에서 많이 생겨요. 처음에는 어…. 나한테 이런 병이 있다는 사실도 그렇고, 몸이 계속 부어서 힘들었는데 이젠 뭐 그럼에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요즘은 일이 많아서 잠을 잘 자지 못해요.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잔 잠이 다 합쳐서 10시간도 안 될 거예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긴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저에게 일이 있어서 바쁜 거잖아요. 그게 제 몸이 아픈 걸 잊게 해줘요. 진통제도 먹고 병원 약도 먹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일이 제 영양제예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몰아서 쉬기도 해요. 침대랑 한 몸이 돼서 안 움직여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이 즐거운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지네요. 다양한 클래스가 진행되는 공방이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수업하기 즐거운 건 어떤 것일까요?

비누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수업할 때 선생님들한테 항상 ‘비누 하나만 제대로 써도 화장품 열개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를 볼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피부가 맑아지게 되고요. 물론 엄청난 큰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피부가 좀 진정도 될 수 있고 어…. 뭐라 그럴까? 이 비누를 만들면서 정말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비누를 쓰고 몸이 너무 좋아 지셨다고 연락을 주시기도 해요. 너무 좋다고 말 한마디 해줄 때,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제가 만든 비누도 빨리 써보고 싶어요. 인터뷰를 통해 ‘아름 아뜰리에’를 서구민의 취미활동 공간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취미활동 즐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간을 찾기도 어렵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서 선생님이 문화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다양한 취미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장님의 취미활동이 있다면요?

저는 그냥 덕질이에요. 다양한 덕질을 해요. 뮤지컬도 보고 전시나 콘서트도 가요. 어…. 아이돌 덕질도 하는데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걸 함께하던 아이가 군대에 가게 되면서 갑자기 혼자 하려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 시기에 갱년기까지 오면서 되게 우울한 거예요. 이걸 극복하게 할 일탈을 ‘한번 해보자.’ 싶었지요. 그렇게 찾다가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을 덕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팬카페에 가입하게 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톡방도 만들고 더 빠지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단톡방 사람들이랑 모임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가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일도 해야지, 덕질도 해야지 막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되게 잘 넘겼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나이에 상관없이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모이거든요. We are the world.예요. (웃음)



저도 취미활동을 여기저기 추천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 마음에 너무 공감됩니다. 열정적인 취미활동과 같이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취미에 있어서나 혹은 인생에서 무언가여도 좋은데요, 그에 대한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이걸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거요.

비누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뭐 디자인 이런 걸 떠나서…. 비누를 만들러 오시거나 사러 오실 때 여러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잘 알았으면 저분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줬을 텐데 싶고. 그래서 그냥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대학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비누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이전에 욕심이 나서 포기하게 되었지만 이제 기회가 된다면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엔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이에요. 아로마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건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대신 우리나라는 대체 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지인을 통해서 관련 서적을 보니 아로마 치료법에서 공부하면서 본 책이랑 내용이 비슷했어요. 졸업은 못하더라도 더 좋은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 이유로 반려동물 ‘아로마 치료법’ 같은 강의도 계속 들으셨던 것 같고,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문득 제가 처음에 클래스를 문의드렸을 때가 떠오르네요. 사실 이전에도 저는 비누 클래스를 수강해 봤지만, 피부 유형이나 나이를 물어보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수강생 맞춤으로 수업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비누를 쓰는 이유가 세정력도 있고 보습력도 있지만 건강의 이유로 급박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처음부터 세부 사항을 물어봤던 건 아니에요. 한번은 예쁜 비누 사진들을 보고 비누를 만들러 오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는 본인 피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피부를 보니까 이런 단계인데 제 생각에 기왕 만들 거 이런 비누를 좀 만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게 됐어요. 재료를 다시 준비하게 되더라도 그 분으로서도 더 좋은 비누를 만드는 거니까요.



제가 미리 물어보고 타입에 맞게 재료를 준비해 두면, 오셨을 때 이제 예쁜 비누로 만들면서 동시에 성분이 더 좋은 비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한테 맞았다 그러면 이분은 계속해서 그걸 만들러 오세요. 수강생은 좋은 거 써서 좋은 거고 저는 또 오셔서 만드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물어보게 되었어요.

다들 아뜰리에에서 만족스러운 비누를 만들어 갈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이 수강생들이 이런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혹은 '여기서 이걸 느끼고 가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배워서 자격증을 수료하고 같은 지역에서 공방 운영을 시작하시면 저랑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되잖아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물론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언젠가부터 홀로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모르는 걸 물어볼 데가 없고 혼자서 맨날 뭐 아등바등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나한테 배우는 수강생들은 나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야겠다.' 했죠. 그래서 내가 겪은 시행착오들을 미리 알려드려서 선생님들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제자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윈-윈해야 해요. 이 일 자체도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나 재료 떨어지면 가서 재료도 빌려 갈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건 서로 알려주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요. 물론 저도 어떨 때는 그냥 내 거인데 이걸 나만 하는 건데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오픈해야 하나 싶죠. 근데 결국은 그러면서도 저도 풀어요. 그 선생님이 잘되면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서로 잘되는 일이니깐요. 외부 행사가 잡히면 이제 막 시작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가요. 가서 강의 팁도 알려드리고 그 선생님들 이력서에 한 줄 채워주는 거예요. 그 한 줄이 그분들에게는 진짜 커요. 전 그 한 줄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름 아뜰리에'가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곳으로 기억이 되길 바라시나요?

'거기 가면 편해.' 이런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신 분처럼 아무 때나 쓱쓱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웃음) 제자 선생님들은 가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막 웃어요. 그냥 여기 이 공간이 그래요. 그래서 아, 가끔 내가 너무 편하게 운영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편하게 와서 부담 없이 만들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는 엄마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도 아니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낯설긴 하지만요. 저는 아이 성향을 빨리빨리 알아내서 이 아이의 능력치에 맞게 아이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모습에서 엄마들이 놀라기도 하죠. 제가 전에 미술학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냥 나이에 맞게끔, 제가 눈높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쌓은 노하우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 상관없이 부담 없이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장님에게 이 '아름 아뜰리에' 공방이란 어떤 걸까요?

그냥 여기는 제 집보다 편한 곳이에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일터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저는 일이 많을 땐 여기서 잠도 자요. 바닥에다 돛자리 깔고요. 한 30분, 한 시간 정도 쪽잠도 자고 그래요, 일이 많을 때 그러거든요. 불편하지만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 돈을 벌어야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눈치 안 보고 덕질도 할 수 있고요. (웃음) 여기 있으면 그냥 편해요. 집은 살림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일인 거예요. 살림은 끝이 없어요. 계속 나오는데 애는 끝이 있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돈이 되는 거고. 근데 집안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지치고

끝이 없고 그러니까 집 밖이 더 좋은가 봐요. 여기 이 공간이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파도 그냥 나와서 있으면 아프지 모르겠고 그런 공간이요. 집보다 오래 있고 편한 곳이에요.

사장님께 의미가 큰 공방이네요. 다른 분들에게도 즐거움을 가져다줄 취미활동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주민들에게 이 기회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서구 주민들에게... 음... 주민보다는 관계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진짜 활동들을 많이 해요.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은데 더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아이들에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매번

느꼈던 게 그러거든요. 최근 참여한 행사도 다 아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이거 안 해도 할 거 많아요. 부모님들이 많은 걸 해주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깜짝 타임으로 어른들을 위해서만 진행하고 왔었어요. 이틀간 두 번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오픈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또 대부분 무료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옆에서 아이가 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하니깐 너무 재미있어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것들도 좀 다양하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 이 인터뷰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서구에서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였어요. 서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취미활동 공방 장소를 소개하고 싶었고요. 서구에서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서구에 어떤 게 있는지 정보가 없기도 했고, 있다고 해도 금액적인 부

분이 부담되기도 하니까요. 성인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공감 많이 되네요.

맞아요. 제가 외부 나가는 것도 학생들 위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남자분들도 참여하시는데 색을 막 칠하면서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망쳤다고 좌절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색을 칠해서 도와드려요. 그렇게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거 처음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어른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거기 오신 분들 다 애들 엄마 아빠들이거든요. 아이들 행사는 다 이런 건데 부모들은 뭐 해요? 행사에 온 그분들도 힐링하고 가셔야죠.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들에게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서구에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사장님처럼 다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덕분에 저도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각보다 더 좋았던 인터뷰 글쓰기

김예은

내가 사는 서구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던 중  
우리 동네 '또간집' 인터뷰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을 잊고  
비누 수업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공방 사장님에 대해 더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하루 수업만 듣고 비누만 만들었다라면 몰랐을 사장님의 취미활동과  
사장님의 비누에 대한 애정을 깊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름 아뜰리에' 공방을 알리는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번 활동을 진행하며 인터뷰 글쓰기가 제 새로운 관심사로 자리 잡았고,  
서구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보다 정보 공유가 더 잘 되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4주 동안 함께 인터뷰를 준비해 온 여러 '또간집' 멤버분들을 만나게 된 인연이 소중했습니다.  
여럿이 함께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서구민들이 더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서구의 여러 취미활동 공간을 소개하는 기회가 다시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 가좌1동만의 매력, 이주민들의 보금자리 '우마르파룩 이슬람사원'

가좌동에 산지 거의 20여 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 모르는 곳도 많다.  
예를 들어 '그로잉라운지' 라는 주소는 석남동이지만, 가좌 홈플러스 근처  
사거리에 있는 2, 3층 대형카페이자 복합문화공간인데 그곳을 다니게 된  
계기로 가좌1동 주변도 다시 다니면서 수입식품 등 마트가 많아진걸  
실감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발견한 곳은 '우마르파룩 이슬람사원'이라는 한글 문자 위에 낯선  
원어도 올린 곳이었다.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찾아가 봤다.



**인터뷰이** 모하메드 람진 가좌1동 주민이자 우마르파룩 이슬람사원 일원

**인터뷰어** 야마다 다카코 생활사 기록가



사진 좌측 필자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모하메드 람진이고 스리랑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좋아해서요, 어느새 여러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2020년에 이곳으로 이사 왔고요, 그 이후로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살기로 결심한 이유는요?

이 마을의 평온함과 환영의 공동체가 저를 끌어들이었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나 자신과 평화롭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혹시 함께 사는 가족도 있나요?

네, 함께 사는 가족이 매우 많지만요, 한국에는 살지 않습니다. 모두 스리랑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거나 아이들도 사원에 오나요?

물론 사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치 있는 삶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교육은 엄격하고 높은 기준으로 유명하며, 이는 학업 우수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거는 높은 기대치로 인해 학생들이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경력 성장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으로는 긴 근무 시간과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 있겠습니다.

사원을 준비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점 중 하나는 사원이 예배 장소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살아나고 활기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본 것은 엄청난 보람이었습니다.





사진 좌측 모하메드 람진 씨

### 가좌동의 삶은 어떤가요?

가좌동의 삶은 평화롭고 만족스럽습니다. 지역 사회를 지지하고 주변은 아름답고 고요해요.

### 사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 사원에 오는 사람들의 국적 별로 보면 어떤가요?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을 볼 수 있지만 주로 스리랑카에서 온 방문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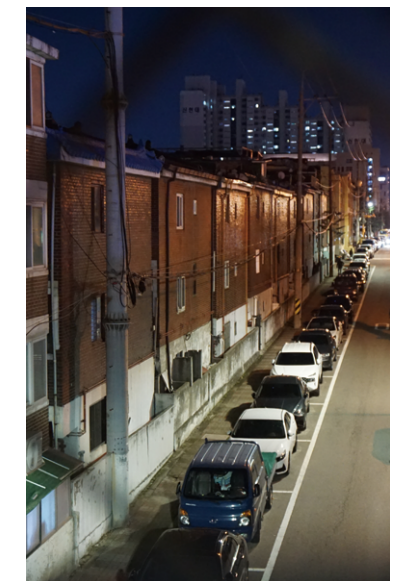
###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훈련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구조감과 영적 성취감도 제공합니다.



### 마을 주민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지속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로 서로 성장하고 지지해 나가보아요.



### 식사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없나요?

아무래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식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취미 (과거, 현재) 등이 있다면 뭘까요?

제 취미는 책 읽기입니다. 특히 소설.

### 좋아하는 스포츠, 영화, 추천 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크리켓을 즐겨 보고 영화를 자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만한 영화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기 시작한 20여 년 시절,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한 시장이 바로 여기 '가짜시장'이었다. 아직도 한국어가 서툰 나에게 친절히 해주신 시장 상인들 만나며, '정다운 동네'라는 인상이 깊이 남은 곳이다.

사진 제공 : 별사탕팩토리

인터뷰이 전윤이 별사탕팩토리 대표

인터뷰어 야마다 다카코 생활사 기록가

**별사탕팩토리**

[www.byeolsatang.com](http://www.byeolsatang.com)

물고기 모스크뷰브(벌레기피)

아로마캔들, 시나몬 타블렛

천연비정제 밀랍 캔들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이플라워

천연 소이 캔들

은은한 향의 석고방향제

**별사탕팩토리**  
Special Your Life with Byeolsatang Factory

인천 서구 원적로 96번길 16, 201  
Tel.070.4151.7441 Fax.032.571.7441

그런 우리 가짜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동네 방송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작년에 가짜4동 인천마을 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되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게 된 분이 이번 인터뷰 주인공, '별사탕 팩토리' 운영자인 '전 윤이' 씨다. 그 동네 방송 촬영 시에 처음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이 공방을 찾아가며, 아담한 공간이지만 그녀의 솜씨를 통해 제작된 아기자기한 창작물이 가득 넘쳐있는 것이 참 인상 깊었다고 할까. '별사탕 팩토리'라는 공방 이름처럼 가짜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곳.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기대가 된다.

사진 제공 : 별사탕팩토리

오늘은 인터뷰에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사탕 팩토리 공방의 별사탕 쌤 '전 윤이'입니다. 줄여서 '별쌤'이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웃음)

왜 공방 이름을 '별사탕 팩토리'로 지었나요?

시장이라는 장소에 공방이라는 공간은 조금은 별난 공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사탕이라고 지을까? 하다가 그때 공방 대표상품이 별사탕 캔들이었는데 '그럼 그걸 많이 만드는 공장이 되어보자.' 해서 '별사탕 팩토리'가 되었어요. (크게 웃음)

지금 만드시는 것들을 소개해 주세요.

천연 핸드메이드 (천연화장품, 비누 등), 제로웨이스트, 토탈공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DIY 패키지 납품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요?

2016년에 인천서구청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짜동에 터를 잡고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요?

가짜동은 참 정겨운 곳이라고 느꼈어요. 가짜동에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게 웃고 웃고 하면서 추억을 쌓고 있어요. (웃음)

31

가짜 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곳



지역 주민과의 기억남은 일화 등이 있을까요?

제가 2022년도에 만화카페 위탁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카페에서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분이 혼자 오셨길래 행사 참여를 권해봤어요. 한데 선뜻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문화공간 지원 사업에도 참여해 주시고 기타동아리도 함께하고 지역 활동도 함께 하면서 관계가 지금까지 쪽 이어져 오고 있어요. 참 고맙고 요즘 보기 드문 친구예요.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뭘까요?

힘들었던 것은 여러 방법으로 홍보해도 공방에서 클래스 진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외부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바쁜 행사 일정들이 끝나면 집중해서 클래스 예약을 활용하는 쪽으로 더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보람이 있던 적도 있나요?

아무래도 제 수업이나 상품에 대해 알아봐 주실 때예요. ○○학교 학부모 연수 때 아로마 캔들과 천연향수 클래스를 했었는데, 그때 한 학부모님이 제게 오셔서 지금까지 연수 중 제일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기쁘고 보람찼어요.

이 지역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대한다기보다는 가좌동에서 수업 영역을 더 넓히고 싶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요?

계획은... 보다 정진하여 '별사탕 팩토리'를 더 키우고 활동 영역도 더 넓히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는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는 많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드라마 중에 '미스터 션샤인'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요.



예전 취미나 요즘 취미 있다면?

예전 취미는 혼코노(혼자 코인노래방 가는 거), 혼영(혼자 영화 보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기타(악기), 시민연극을 하고 있어요.

코인노래방을 좋아하셨군요. 그럼 18번 곡이 뭐예요?

네, 요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고 있어요. 음... 요즘 제18번은 박효신의 '숨'입니다.

박효신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박효신씨 공연을 가 보신 적이 있나요?

박효신 주연의 '웃는 남자' 뮤지컬을 보러 갔었어요. 미친 듯이 클릭해서 겨우 볼 수 있었어요, 대박이죠?

와... 부럽네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서구에서 음악과 관련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아... 인천 서구청 문화지원 사업인 문화충전소를 통해 1939 청년센터에서 전시 및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지역 아티스트분들과 우리 기타동아리 '기타충전소' 회원들이 함께 공연했었는데요. 그때 공연을 보시고 관객 중 한 분이 우리 기타동아리에 가입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참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좋아하는 음악(장르)은 어떻게 되세요?

뉴에이지나 재즈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사실... 전 음악은 장르를 불문하고 다 좋아해요. 기분이 나 상황에 따라 듣는 음악도 달라지거든요. (웃음)

그렇다면, MBTI 타입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INFJ-T였는데, INFJ-A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ENFJ로 바뀌었어요. (웃음)

그렇게 변화하기도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서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나요?

가좌동에서 좋아하는 곳이 많아 한 곳을 소개하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한 곳을 고르자면... '가재울 이음숲'이요. 제가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음숲'이 참 걷기 좋아요. 가좌동에 오신다면 이음숲 산책을 꼭 해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엄지척)

사진 제공 : 별사탕팩토리





# 우리는 모두 이웃이에요

야마다 다카코

인천 서구 가좌1동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다.

교통도 편리하며, 인근에 다양한 편의 시설과 공원, 교육 기관이 있어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과 음식점도 많아 일상적인 편의가 좋은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어떤 사람은 가좌시장 같은 큰 시장이 없는 게 좀 불만이라고 한 것도 들어본 적도 있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가좌동 중에서도 큰 시장과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나도 가끔 아쉬울 때가 있다.

그중 하나가 ‘오크라’라는 아욱과의 속씨식물이 생각 날 때이다.  
기다란 초록빛 씨앗 주머니를 먹는 채소이다. 일반 시장에서는 보기가 힘들며,  
내가 자주 이용하는 가좌시장에도 이걸 파는 곳은 본 적도 없었다.

아마 여기서 먹는 주민이 많지 않아서 유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 같다.  
일본이나 필리핀 출신 사람들에게는 없으면 좀 더 먹고 싶어지는 고향의 맛이라고 할까.  
적어도 나에게 ‘오크라’는 그런 존재이다.

한데 이 지역에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지 오크라 같은 식품을 파는 수입품 마트가 몇 군데 있는 곳이 바로 가좌1동이다. 그 이외도 여주라든가, 이름도 잘 모르는 역시 일반 마트에서 찾기 힘든 채소들을 여기서는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더욱 이주민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이주민들에게 보금자리 같은 가좌1동에 거의 5년 전부터 자리 잡게 된 '이슬람사원'.  
이곳은 주말 저녁이 되면 하루나 일주일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이주민들이 하나둘 모인다고 한다. 그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살며 노력하는 이들이었다.

이번에 나에게도 조금 낯선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긴장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하고 왔다고 일본어로 이야기 해준 분이나 반갑게 맞이하여 준 분들도 많았다. 오래간만에 서툰 영어로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것은, 외모가 다를 뿐 모두가 우리와 같이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다만 종교적인 삶에 충성을 다하며, 낯선 생활에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들일 뿐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잘 이해하며, 교류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Happy day



PHOTO



Happy day



PHOTO

동네친구 : ‘서’적인 매거진



Happy day



PHOTO



Happy day



PHOTO

동네친구 : ‘서’적인 매거진



# 당신의 지금을 예술로 채워줄 'ㄱㄱㄱ'



**인터뷰이** 홍정근 차차차대표 사장님

**인터뷰어** 이진형 수필가



서구에 있는 여러 멋진 곳 중 구민 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특별한 곳을 기록하는 '또간집'입니다. 사장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비오비'와 '차차차'를 운영하는 홍정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방문해서 살펴보니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비오비' 식당과 '차차차' 모두 매장 컨셉이 굉장히 독특하고 확고한 사장님 취향 같은 게 반영된 거 같아요. 인테리어와 컨셉 구성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가 마음대로 좀 공간을 구성해 풀어놓으면, 아내가 색채를 조금 단정하게 해주고 뻘 것을 빼주는 균형 잡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저는 좀 과한 편이라서 비어있는 공간을 다 채우려고 하는 편이라, '비오비'는 그렇게 온전히 채가 채운 공간이고, 찻집은 조금 정제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내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에 담긴 의미나 방문하시는 손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일러스트 작가라 표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 공간에 오면 '그

공간 자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비오비'도 그렇고, 찻집도 그렇게 만든 공간이에요. 찻집은 조금 더 그걸 중시해서 만든 가게인데 조금 '전통과 현대가 공존했으면 좋겠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커피만큼이나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도 '차'라는 훌륭한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수출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많이 즐기지 않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런 주제를 조금 담았어요. 우리 것들이 되게 소중하고 우리 것들도 이렇게 나열해서 잘 어우러지면 되게 멋있고 요즘스러운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런 의미가 담긴 공간입니다. (매장 천장에 걸린 '오봉도' 조형물을 가리키며) 사실 저런 '오봉도'나 송이나 그러니까 테마를 좀 두는 편인데 저는 동아시아적인 총체적인 느낌을 좀 담고 싶었어요. 여기는 물을 제조하고 파는 곳이니 파도와 관련한 테마를 선택했는데 파도도 잘 보면 약간 이렇게 파동 음이라고 하죠. 그 모습을 보면 산 모양 같거든요. 너울들이 저는 산을 닮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공감각 같은 걸 좀 연관시켜서 공간 테마를 좀 다 꾸미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기도 산이 달려 있고 이렇게 물에 대한 테마가 많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 확실히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인테리어를

채우는 느낌이 아니셨네요.

맞아요. 일부러 조금 이스터에그 혹은 좀 이런 은유를 숨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낚시하는 고양이들이 있는 이유도 여기 전체가 ‘우리가 어떤 가상의 물을 학습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싶어요.

어쨌든 카페도. 유목도 수족관에서 쓸 법한 것들이 달려 있고 돌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물을 생각하면 제주도가 바로 떠오르니까, 그래서 약간 또 현실과 가상 그리고 현재와 진짜와 가짜가 혼재하게 만든 것들도. 저런 것들도, 꽃도 다 거의 다 레고거든요. 저기 극락 조화 같은 거나 저런 목화 같은 경우도 사실 옛날 꽃인데 되게 요즘 같은 레고로 재해석한 느낌인 거죠. 저한테는 전통과 현재와 같은 거예요. 다 그런 메타포를 조금 두었어요. 저런 호랑이 같은 것들도 다 그런 느낌들.

#### 되게 재미있는 공간인데요.

공간 자체도 보는 재미가 있게끔 그렇게 좀 꾸미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질문에 대답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 인천 서구 그중에서도 이곳에서 찻집을

운영하시게 된 이유는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애착이 있어요. 우리가 동네에서 찻집을 기획했던 이유가 우리가 사는 동네라서 운영을 한 거거든요. 공간을 이제 서울권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냥 여기 차렸던 이유도, 사실 저는 계속 반항하면서 약자의 입장을 늘 대변하고 싶달까요. 약간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걸 좀 타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콘텐츠가 좋고 내실이 단단하면 내가 그냥 내 집 근처에서 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라고 우겼던 편인 것 같아요.

찻집은 또 명확히 이야기하면 사실 ‘비오비’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길고 기다린 분들한테 약간 좀 선물 같은 보금자리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픈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상권 자체는 ‘비오비’도 안 좋았지만 여기는 더 안 좋거든요. 사실 아는 사람만 정말 찾아올 수 있는 위치죠. 월세도 저렴하고, 저희도 부담되지 않아야 오래 운영하니까요. ‘비오비’에서 막 전투적으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유유히게 흐르는 파도나 잔물결처럼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명확하게 기획해서 만든 가게예요.

#### ‘차차차’이라는 상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성으로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항상 봐요. 저는 처음 어떤 걸 생각하냐면 ‘치웃’이잖아요. 그러면 자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며) 사실 꽃잎 꽃도 될 수 있고, 바다에 서면 이건 불가사리도 될 수 있고, 별이 될 수도 있고, 밤하늘에서 보면 ‘오방성’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먼저 이 이미지를 짜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ㄸㄸㄸ”이라는 가게를 열거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약간 실험 예술처럼, 사람들이 뭐라 부를까 지켜봤는데 대부분이 다 ‘차차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호는 사실 손님들이 지어준 별칭이라고 봐야죠. 뭐든 좀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 가게 운영, 창업에서도

확실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다들 일상을 조금 소중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이예요.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항상 기획이라는 걸 하거든요. 동네에 이런 가게가 워크인<sup>2)</sup>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이런 콘텐츠를 향유하려면 지리적 특성상 되게 멀리 나가야 아니까요. 조금 더 이제 밀집해 있는 곳으로 가야 아니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여기 근처에 살고 이 가게를 차린 거죠. ‘비오비’ 메뉴를 맨날 바꾸는 이유도 저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찻집도 시즌제로 이렇게 도입해서 메뉴를 한번씩 다 갈아엎어요. 제가 여기 상주할 수 없어서 매일 카페 메뉴를 바꾸진 못하지만, ‘추천차’라는 게 있어서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도 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냥 제 신념은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예술가적 접근이라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이미 가격을 내신 분들이, 음식값 그 이상으로 느껴준다면 그 값보다 저는 더할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감상을 얻듯이 저는 이

공간을 통해서 공간을 꾸미고 그 속에서 제가 제공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뭔가 그 이상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료를 먹는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새로움을 느끼고 하나의 작은 영감이라도 내가 줄 수 있다면 나는 또 이미 이걸로 예술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요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사실 매장 운영을 통해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 손님들이랑 정말 오래 지낸 동생처럼 친구처럼 안부를 묻고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손님들과 편하게 소통하시는 비결이 뭘까요?

이건 또 제 다른 업(業)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이벤트사업을 원래 오래 했었어요. 오랫동안 MC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흔히 생각하는 수련회 교관 레크레이션 MC 강사 같은 것들을 거의 한 10년 넘게 하고 수제자들 두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 응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프로라고 봐야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이름을 외워주는 것, 가능하다면 모두 다 알아봐 주려고 해요. 칭찬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뀐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해 주고 오늘 뭐가 좋다, 그런 칭찬들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칭찬이 습관처럼 되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어느새 어른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약간 어느 정도의 부모 같은 심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 응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페에 오셔서도 사람들이 “저 난생 처음 먹어본 음료예요.” “진짜 이런 맛이 어떻게 나요?”라며 신기해하시고 제가 의도한 바를 알아봐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친근한 유대관계 형성의 팁은 결국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 진실한 마음으로 와주는 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칭찬과 관심. 이게 결국 애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와주는 사람들이 고마운 걸 알아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본인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너무 치근덕

2)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에 직접 오는 손님.



대는 건 저는 항상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막 다가 와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머리 바뀐 거 잘 어울리시네요.”라고 말 하면 그걸 여성분들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냐면 “나 머리 바꾼 거 아무도 몰라.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러시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선의를 보여줘야 사실은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이 가게를 누리는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 차차챗 메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사자성어를 빌려서 한 글자씩 바꾸고 싶었어요. 사자성어를 빌려서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먹게끔, 흑임자 들어간 음료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 ‘근묵자흑(近墨者黑)’인데 ‘금묵흑흑’이라고 해서 ‘흙에 물들다’라는 느낌을 약간 음료로 표현했어요, ‘화양연화(華陽年華)’다 하면 ‘화양일화’라고 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처럼 이렇게 이쁜 음료가 나간다고나, 하나씩 이렇게 다르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야기 나누면서 사장님은 인생의 ‘To do list’라든지 ‘Bucket list’가 분명히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의외로 많이 없어요.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맛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늘 이야기하는 건데 아내한테 충실한 남편, 우리 반려견 ‘골드’에게 너무 좋은 아빠, 손님들한테는 너무 잘해줬던 사장님, 날 기억해 줬던 내 추억의 맛집 사장님, 추억의 카페 사장님, 아니면 계속 교류하고 있는 언제나 와서 인생 상담할 수 있는 멋진 오빠, 형, 삼촌, 그런 것들. 중간중간에 제가 멋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포지션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항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매장에서 공연도 하시는 것 같은데,

### 공연을 기획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예술가로 되게 오랜 기간을 살아서, 사실 요즘 개인 방송도 많은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 아티스트가 설 자리가 많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대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공연료를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십시일반 건어서 공연장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구조로 공연을 계속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티스트 본인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관습처럼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은 열정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간에서 호흡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따로 있거든요. 사실 예술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어요. 서로 막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고, 손 흔들고 응원하는. 그게 없으면 사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연을 계속 기획하면서 신진 아티스트에게 무대에 서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사실 우리도 어떤 활성화를 다시 느끼고요.

### 공연은 사전 예매인가요?

일주일 전에 올려서 이런 기획이 있다. 참여하실 분들은 DM을 달라 공지드려요. 보통 1~2시간 이내에 마감합니다.

### 공연의 구성은 오롯이 그 공연에 나오시는

### 아티스트분이 하시나요?

아티스트에게 맡기고 그 공연 맥락과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음료를 준비한다거나 술을 준비한다거나 해요. 공연비로 얼마를 건어야 할지 가능하는 정도를 합니다. 왜냐면 공연자가 적어도 반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으니까요.

### 많은 분이 카페 창업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미 경험하신 선배로서 창업의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좋아하면 하고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돈 벌고 싶은 생각이면 카페는 오히려 반대. 편하게 돈 벌고 싶은 생각이면 오히려 빨리 편의점 알바를 알아보는 게 좋아요. 카페는 어떤 노력보다도 더 큰 노력이 들어가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아서 취미로 명함 하나 만들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면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뭐든 그건 해봐야죠. 근데 조금 편하게 재즈 음악 들으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말하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라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돈 못 벌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저가 커피 해야지 목 좋은 곳으로 가야지,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알바로만 운영되는 매장이 있는데 그런 거 하려면 때려치워, 이 사람야.”라고 말해줄 거 같아요. 돈도 되게 중요한 가치긴 한데 어쨌든 돈을 벌려고 카페를 자기 나름의 창업을 한다면 이 과포화의 시대에 정말로 반대예요. 근데 하고 싶으면, 뭐가 좋아서 하고 싶으면 해라. 당연히 해 봐야 하는 거고요. 돈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창업은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어떤 창업이든 음식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BOB’, ‘차차챗’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일러스트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말도 우습고, 근데 어쨌든 그림은 제 삶의 일부라서요.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것들은 제 삶의 일부라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다음이 옷을 만드는 걸 것 같아요.

옷을 만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리법들을 전부 다 조금 아카이브에 올리고 싶어요. 책을 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것들을 해서 이걸 뭔가 문서로 만드는 그게 촬영이 됐건, 그런 과정들을 조금 해서 이게 그냥 소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년 전에 했던 메뉴는 제가 이제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 복귀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아마 이제 그 일을 병행하면서 할 것 같아요. 아내랑 저는 여행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여행 관련해서 뭔가 촬영을 할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브랜딩도 런칭할 거고, 아마 삶의 과정 중에서 있을 겁니다.

옷도 그냥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이런 업사이클링 (up-cycling)에 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매장 운영에 집중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힘의 원천이 뭘까요?

그것도 제 '맛'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은 것들을 대변하는 게.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끊임없이 창작하는 사람이 제 '멋의 기준'이라, 제가 어쨌든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려면 저는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만들어 내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게 저한테 중요한 창구라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옷이 됐건 숙박업의 모습이 됐건, 어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다시 기록하는 아카이브의 모양이 됐건, 저는 아마 계속 뭔가를 만들어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세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제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제 걸 선보이는데 저는 안 즐거워할 그거 없어요. 자부심이 있으니까. 프라이드에서 온다고 봐요. 장사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연극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뮤지컬을 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앉아서 제가 일하는 걸 본다고 생각해요 보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나는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자기 암시가 있어요.

여기서는 차를 진중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즐거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제가 먹었을 때 맛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은 단골이 계시고, 거의 다 단골이라 안 즐거울 수는 없죠. 서로 안부 묻고요. 제일 커다란 자랑은 제 밥이 제일 맛있다는 거. 줄을 세우고 팔로우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방문하는 손님들이 커피를 사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카페인데 또 커피를 사 와요.



사람들이 카페인데도 쿠키를 사 와요. 사람들이 나눠 먹자고 드셔보시라고, “사장님 힘드시죠.” 이러시면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냥 그 가격만큼 계산하고 나가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절대로. 근데 고생한다고 아이스크림 사 오고, 고생한다고 뭐 사 오고, 사장님 너무 감사해서 뭐 사 오고. 감사해요. 추석 선물 받는 사장 본 적 있어요? 굿감 세트 사 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공간에서 안 즐거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만든 창작물을 먹고, 심지어 창작자가 그 속에서 그렇게 피드백을 받는데, 이 공간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에서 그만한 감상을 느껴주고 창작자로서는 너무 즐거운 공간이죠. 사실은 너무 재밌어요.

매장 운영하시면서 어떤 때 가장 힘드세요?

날씨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더운 것도 너무 힘들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저번 겨울에 어떤 애는 동상에 걸릴 뻔하고. 비 오면 그게 제일 힘들고, 이번 여름에는 불볕더위 때문에 손님들 다 쓰러질까 봐.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가게를 넓히거나 아니면 없애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소비한다고 해서 즐거울까, 온전히 소비할까, 이게 맞나? 이게 어떤 유명세에 기대리는 거 아닐까. “여기 맛집이래.” 그렇게 해서 와서 소비하는 경우, 우리의 모든 의미가 다 사라질 것만 같고 찻집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차차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차차차’를 간결하게 소개하신다면요.

“우리 동네에도 꽤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꽤 괜찮게 만들어 놔습니다”가 좋으려나요? 괜찮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소개인데요. 굉장히 고민하시더니...  
왜냐면 그래도 뭔가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 가구가 공존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는데 그거보다 그냥 봐야 느끼는 거니까 맞아요. 보시고 아마 괜찮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차차챗’이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었으면 하세요?

“꽤 괜찮은 공간이었어.” 이거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나 차 거기서 먹어봤었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트렌드를 우리가 여기서 이끌었다는 자부심은 있고, 근데 트렌드를 이끌었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소개하는 과정에서 “너 어떤 차 마셔봤니?”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마셔봤지.”라고 할 때 우리 가게를 딱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추억이 있는 나의 처음과 관련이 있는 가게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여기서 마셔봤던 게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고, 공간의 새로운 경험이란 무언가 영감을 많이 줬던, 그런 가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인터뷰에는 사장님의 아내이자, ‘차차챗’을 공동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함께 자리하셨다.)  
정말 두 분 참 멋지세요. 이 모든 게 손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다 비롯되어서 손님들과도 진심으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어진다고 봐요. 이건 시대 유감이죠. 사실 돈 벌려면 뭘 못 하겠어요. 근데 버는 건 버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벌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음 가짐부터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돈이 따라오면 그건 너무 행복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벌 만큼 벌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조금 들고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인테리어도 하시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하시는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다 안 느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차츰차츰 알아가는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뭐 어떤 그림을 보면서 그제 한 번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는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막 노을이 떠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우스운 이야기이고, 근데 그걸 어디서 촬영했을 때 “나 저 그림을 알아.” 하면서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림이야.”라고 알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인터뷰 전과 후, 달라진 나

## 이진형

인천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인천에 어떤 멋진 곳들이 있을지 궁금했다.  
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나는 인터뷰라는 형식의 글쓰기를 배우는 기회가 흥미로웠다.  
그래서 호기롭게 '또간집'에 도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할 곳을 정했을 때, 인터뷰 전부터 그곳이 뭔가 특별한 가게이고,  
사장님도 범상치 않을 거라는 느낌은 있었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 표면적으로 느낀 것 이상으로 특별함을 품고 있었다.

인터뷰하면서 단순한 담소가 아닌 인터뷰 기록물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누군가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집중해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과 에너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의 내용의 느낌과  
기록할 때의 느낌이 다름이 느껴질 때, 이전에 알 수 없던 색다른 면도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의 나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한 발짝 떨어져,  
조금 차가운 눈빛으로 서구를 바라보았다. 하나 이젠 내 시선 온도가 조금은 더 따스해진 것 같다.  
인천 서구에 온기가 느껴진다.

‘능내 공원’에서 바른 자세로 걷기  
‘아시아드 경기장’ 황톳길은 건강이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달리는 이유  
길동무 ‘호봉산’에서  
의지 부족도 이 운동은 할 수 있더라  
승학산을 오르며  
여성 혼자도 안전하게! 단시간에 맨발의 부루마불 여행





# '능내 공원'에서

## 바른 자세로 걷기

김경옥

이리저리 뒹굴며 방콕만 하던 어느 날, 남산만큼 커다란 내 배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안 되겠다. 집을 나섰다. 집 근처에서 걷기 좋은 산책로가 어디 있는지 찾아 보았다. 지난해 아침 산책하며 밤 잠던 기억이 떠올랐다. 동네 근처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다는 것, 바로 '능내 공원'을 찾았다. 능내 공원은 서구 마전동에 있다.

넓은 축구장이 있어 젊음의 생기가 샘솟는 곳이다. 주변에서는 남녀노소 하루의 건강을 위해 걷기도 한다.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 코스다. 새벽부터 하나둘씩 모여 노인사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한다. 단풍이 자연의 자량을 마음껏 뽐내는 것 같다. 상큼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어깨를 쭉 펴고, 가슴을 활짝 열면서 걸어본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바른 자세를 하며 한껏 뽐을 잡아 본다. 기우뚱, 기우뚱 중심을 잡지 못하는 내 몸이 야속하기만 하다. 게으른 나를 돌아보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정신 차리고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내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 비뚤어진 자세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점검했다. 그리고 조금씩 고치기로 했다.

첫째, 기본자세로 똑바로 서서 걷기 실천하기.

둘째, 천천히 보폭을 넓히며, 다리에 힘주고 발을 높이 들며 걷기.

도전해 보니 생각보다 어려웠고 지쳐서 하기가 싫었다. 공원에 여러 가지 운동 기구가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곳이 보였다. 자갈이 다양한 모양으로 웅기종기 재미있게 놓여있어 발을 지압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맨발로 자갈을 밟는 순간 자지러질 듯

통증이 심해서 걸을 수 없었다.

‘과연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한숨만 새어 나왔다.

사람들이 씩씩하게 운동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다. 나도 꾸준히 관리해서 달라지는 나를 만나고 싶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도전하기로 다짐하며 통증을 참고 조금씩 걸어 본다. 땀방울이 나를 응원해 준다. 용기를 내서 두 팔을 하늘 위로 높이 들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 본다.

“경옥아!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부터 내디뎌 본다.

그래, 욕심보다는 천천히, 희망을 쥐고 노력하는 것이다.

건강한 내 70대를 위하여, 화이팅!





# '아시아드 경기장'

## 황톳길은 건강이다

김영신

처음 아파트 25층에 살았을 때는 생활에 너무 높아서 적응이 안 되었다. 그다음 이사한 곳은 11층, 지금은 7층에 살고 있다. 베란다에서 산이 보이는 숲세권이라 초록을 매일 보고 있다. 새소리에 아침 일찍 잠에서 깰 때도 있다. 베란다 창을 열고 숲을 보면 새가 깃털 고르는 소리를 맞는다. 가볍게 날아오르는 산 비둘기가 눈에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눈은 힐링이 되고 시원함을 주지만, 운동을 안 하는 요즘은 피로가 많이 느껴진다. 혈압도 높아 코로나 주사를 맞을 때도 혈압이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혈압약은 안 먹고 있다. 요즘 피곤함도 빨리 느끼고, 뱃살도 많아져서 운동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간과 돈을 들여야 운동하는 맛이 난다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 돈을 내고 요가도 배워보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맞추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2023년 10월,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꼼짝하지 못하고 열흘간 누워만 지냈다. 화장실도 기어서 갈 정도로, 온통 빙글빙글 돌아서 똑바로 설 수가 없었다. 욕심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큰 언니와 조카가 와서 병원에 겨우 갈 수 있었다. 이석증이나 메니에르가 아닌 스트레스와 면역력의 저하였다. 그때 느꼈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축복인 것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오른손도 넘어지면서 팔목에 금이 가서, 김스를 한 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침에 근육이 굳어서 목직한 기분으로 아침을 반긴다. 무릎도 계단을 조금만 걸으면 금방 표시가 나서 절대 계단은 안 걷는다. 엘리베이터를 찾는 노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매일매일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요즘이다.

내게 맞는 운동이 무엇이 있을까 찾던 중이다. 5개월 전 아는 언니가 불면증에 시달려서 자주 찾는 곳이 있다고 했다. 나도 그때는 갱년기로 잠을 못 자던 때라 호기심에 같이 가 보았다. 서울 올림픽 경기장도 지나고 다시 한참 지나 미사역에서 내렸다. 역에서 10분을 걸어가니 보령 황토로 걷는 길을 만들고, 신발장과 발 씻는 곳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사 숲 공원 황톳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나도 맨발은 처음이었다. 양말을 벗고 사람들과 보폭을 맞추어 걸었다. 축축한 황토가 편안했다. 그 후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황톳길이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에서 미사까지 멀어도 너무 멀다. 집 주위에서 찾아볼 생각은 못 했다.



요즘은 ‘어싱’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사람이 ‘맨발 걷기’를 한다. 그 뜻을 몰랐었는데 찾아보니 땅(Earth)과 현재진행형 (ing)의 합성어로, 맨발로 땅을 밟으며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미이다. 땅은 음전하를 띄고 있는데, 맨발이 땅에 닿으면 우리 몸 안의 정전기와 양전하가 소멸하고, 균형이 조절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서구문화원의 ‘운동네’를 참여하면서 꾸준히 해보고 싶은 운동으로 이 ‘어싱(Earthing)’을 선택했다. 6개월간 꾸준히 걷기를 하신 분에게 좋은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 송도 미추홀공원, 양떼 목장길, 강화 나들길 2코스 황톳길, 무의도 갯벌을 알려 주셨다. 서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서구에서는 모른다고 했다. 직접 검색을 해서 가 보기로 했다. 집에서 가까운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었다. 황톳길이 새로 조성되어서 너무 좋았다. 폭도 2.5m에 길이도 400m였다. 모래, 자갈, 황토볼, 각각 체험존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황톳길을 걸은 후 씻는 세족장도 있었다. 그늘막, 신발장, 그네, 시설이 마음에 들었다. 가까운 곳에 훌륭한 황톳길이 있는데, 애먼 곳에서 찾아 헤매던 모습을 떠올리니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매일 숨 쉬는 곳, 인천 서구에 애정이 더 샘솟는다.

오늘이 1일 차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시원함과 촉촉함에 기분이 좋아졌다. 황토의 건강한 빛깔에 양전하가 금방 사라지는 듯하다. 시간 날 때마다 걸을 생각이다. 갱년기로 인한 불면증을 해소해주면 좋겠다. 노화도 늦춰주면 행복하겠다. 피부도 탄력 있는 피부로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꾸준히 한 후 6개월 후에 소감문을 다시 써야겠다.

어싱(Earthing)을 하시려는 분께 당부드릴 말이 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60대 여성분이 파상풍 주사를 안 맞고 걸으셨다가 감염되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2주 전, ‘관악산계곡 둘레길’을 갔다가, 공기가 좋아서 산길을 맨발로 걸었기에 아찔했다. 녹슨 못, 흙, 동물이 배설해 놓은 분변 등에 있는 파상풍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근육경련, 마비로 생명을 위협받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사망 소식을 듣고 정말 섬뜩했다. 예방이 중요하고 사전에 조심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바로 예방 주사부터 맞았다.

스트레스는 조금만 받고, 사람들과도 소통하며,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시간을 건강에 할애해야겠다. 서구에서 주민들을 위해 마련해 준 맨발 산책길을 걸으며 여유롭고, 건강한 삶으로 다시 걸어가 보려 한다.





#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달리는 이유



김하영



스포츠에도 유행이 존재한다.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스포츠, 단언컨대 ‘러닝’이다. 뉴스나 SNS에서도 우리는 러닝에 관련된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러닝 인증사진을 남기기 위해 도로 한복판 길을 막고 사진을 찍는 ‘러닝 크루 민폐’ 기사, 러닝 열풍으로 관련 분야 산업의 수혜 소식, 혹은 백화점 입점 스포츠 브랜드 중 러닝 관련 매출도 작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다는 기사 등 우리는 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달리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나는 뛰는 걸 좋아하면서 싫어한다. ‘스포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승부욕. 나 역시 승부욕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 즐기기 위해 하는 운동에 목숨을 거는 스타일은 아니다. 타인과 겨루는 스포츠도 멋지지만, 나 자신과 대결하는 운동에 더 매력을 느낀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30~40분 뛰고 나면 어떤 운동보다 성취감과 만족감이 크다. 하지만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 꽤 많은 시간과 인내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 그게 너무 싫다. 좋은 걸 상쇄시킬 정도로.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계속 애정을 갖고 달리고 있다. 애증의 관계이다.



나는 소위 뉴스에서 언급되는 ‘그냥 쉬고’ 있는 2030 구직단념자 70만 명 중 한 명이었다. 학창 시절 특별한 꿈이 없었던 학생이었다.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에 학업에 대해 크게 노력하지도 않았다. 성적에 맞춰 대학과 전공을 정했다. 그렇게 들어간 대학교 생활이 크게 달랐을까. 신입생 때는 학사 경고를 받기도, 졸업 전에는 ‘과탐’이라는 것을 해 보기도 했다. 크게 대단하다거나, 나 자신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 정해진 틀에서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나가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다. 꿈도 목표도 없던 나는 대학 졸업 후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방향성이 없는데 올곧게 앞으로 나아갈 리 없었고, 허송세월했다.

같은 시간 나와는 달리 동네 친구들, 함께 학교 다니던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은 사회에 나가 점차 한 자리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농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다. 그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박탈감이나 질투심이 아니었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노력도 안 하는 주제에 비교는 더럽게 많이 했다. 타인과의 비교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 먹었다. 한없이 작아진 나는 도태되는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숨기기로 작정했다. 하고 있던 SNS 개인계정을 삭제하고, 지인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을 피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을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내 몸에는 문제가 생기게 됐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수면 패턴도 엉망이었고, 평소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갖고 있던 터라 체중이 거의 30kg은 늘어났다. 밥 먹은 지 십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허기졌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느껴졌다. 가끔은 눈으로 보는 모든 게 뿌옇게 보였고, 자도 계속 잠이 왔다. 나타나는 증상이 궁금해 찾아보니 ‘당뇨 직전 단계’에서 보이는 증상들이었다. 이때도 나는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않았다. 한번은 먹으면 잠이 오는 게 싫어 아침을 먹고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결과, ‘저혈당 쇼크’라는 게 나를 쓰러뜨렸다. 처음으로 느끼는 생명에 대한 위협에 놀랐다. 다음 날 나는 서둘러 집 앞 공원으로 나갔다.

그곳은 ‘청라 호수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청라에서 10년간 살아왔지만 딱히 애정은 없었다.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집에서 5분 거리에 아주 큰 공원이 있다는 점. 이곳에는 매우 넓은 호수가 있고, 약 5~6km나 되는 길이의 순환 코스가 있다. 트랙도 있어서 산책이나 뛰기에 너무 괜찮은 장소이다. 더군다나 야간 조명시설도 잘 설치되어 있어 밤에 달리기에도 안전하다.

처음 마음을 먹고 공원에 나왔을 때 내 몸은 뭘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과체중으로 무릎도 좋지 않았고, 평소 허리도 안 좋았다. 뛰기보다는 계속 걷고 또, 걸었다. 밥을 먹은 직후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식후 30분 동안은 무조건 걸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걸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뭘 수 있는 몸이 되었고, 그때부터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뛰는 행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뛰기까지가 어려운 것이다. 오만가지 생각과 걱정들이 뛰기 전 나를 괴롭혔다면 뛰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오로지 내 숨소리와 심장 박동, 좋아하는 음악을 느낄 수 있었다.

달리기가 지닌 순기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다. 러닝을 하고 나서 앞서 언급한 내 증상도 점점 나아졌고,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운동이 내 삶을 극적으로 바꾸진 않았으나, 고립되어 있던 날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됐다. “전부 운동 덕이다.”라는 희망찬 말을 하고 싶진 않다. 사회에서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아픈 청춘이니까. 하나 ‘적(赤)신호’라고 생각했던 쇼크는 내게 ‘청(靑)신호’였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출발 지점을 알리는 휘슬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결승선에 골인했더라도 상관없다. 달리는 경쟁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에. 출발 지점이 조금 다르고 속도도 다르다고 한들 어찌하겠나,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한계에 부딪혀도 보고 넘어져도 봐야지. 나는 지금도 달리는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달릴 것이다.



살아보려고 처음으로 올라갔었다. 건강에 대하여 걱정이나 의심을 크게 해본 적이 없는 시기 마흔. 병이 찾아 들었다. 암이라네. 멍해서서 주위의 걱정과 근심도 부질없고 귀찮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수술 전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운동은 해보셨어요?”

운동을 해왔으면 수술을 이겨 내는 게 쉽다고 했다. 게으르고 인내심도 없고 어렵고 힘든 것을 싫어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수술 후 회복은 느렸고 다른 환자들은 2주면 퇴원하는데, 나는 39일 만에 퇴원하였다. 집으로 온 후, 일상의 전부가 병에 대한 두려움에만 집중되어 일주일 이 멀다 하고 병원을 찾아갔다. 여기저기 이상하다고 의사 선생님께 불안을 호소하니, 사각형의 단호한 얼굴을 가진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두 팔을 책상에 얹어 놓고 몸을 내 쪽으로 기울이시더니 정성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했다.

“애들도 어린데,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해. 정신과 진료 받고 운동을 해요. 수영이나 등산이 좋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시작한 운동이 집 앞에 있는 앞산에 올라가 보기였다. 몸도 아프지만 산으로 발길을 움직이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식구들은 다들 함께 올라가 주기를 대놓고 싫어했다. 그나마 따라나선 둘째 아들은 거미줄이 얼굴에 걸린다느니, 덩다느니 하며 투덜거리는 동행을 해주었다.

산 초입을 들락거리면서 힘들기도 하고, 갑자기 산을 다녀 보려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살아내기 위한 조급한 신념이 절실한 시기였다. 아프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앞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하려고 힘들게 산에 오르나 싶었다. 더운 날은 더욱 등산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귀찮고 힘든 기도 하듯 앞산을 오르게 되었고 한참 후에야 집 앞에 있는 이 산의 이름이 ‘호봉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여 년 세월은 지나고 여전히 앞산은 앞에 있다. ‘호봉산’은 비록 우뚝 솟아 있진 않지만 내가 가진







병에 대한 두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우직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처음으로 산에 오르는 맛을 알게 된 후 이름난 큰 산, 숨어있는 작은 산 찾아다니게 되었다.

산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길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작은 것을 들여다보고 품고 만지며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 준다. 그리고 내 육체적 건강 지표에서 20년 전 암세포는 고사 되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건강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하나 그런 타인의 억지스러운 공감은 필요 없다. 산을 오르며 만들어지는 튼튼한 다리와 건강한 정신을 믿고 그저 앞으로 걸어 가면 된다.

호봉산 안으로 걸음을 들이는 사람들, 남녀노소 강아지 어느 누가 걸어도 나지막이 응집된 작은 산은 조붓한 돌레 길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어느 길로 걸어도 걷다 보면 익

숙한 길을 만나게 되니 길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출근하기 전에 잠깐 아침 운동을 해도 좋고, 커피 한 잔 들고 올라가면 편안한 의자들이 여기저기서 놓여있어 훌륭한 카페로 변한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 본다. 20년 전 따라나섰던 둘째 아들과 함께다. 아들은 20kg 모래주머니를 양어깨에 메고 언덕과 평지는 뛰고 비탈은 걷는다. 살려고 오르던 엄마의 산행길이 아들에겐 체력을 위한 운동 길인 셈이다.



바람결에 꽃이 피고  
뜨거운 햇볕에 녹음이 익고  
푸른 하늘에 단풍이 열리고 나면  
조용히 하얀 눈이 빛을 내고  
언제 와도 쉬와 평온을 주는 모든 이의  
길동무 우리 집 앞산 호봉산





도우미

# 의지 부족도 이 운동은 할 수 있더라

‘아, 오늘도 못 했다.’

30살 직장녀인 나. 매해 떨어지는 체력에 무슨 운동이든 해야겠다는 절절한 생각이 들었다. 수영, 헬스, 요가 등 이 운동 저 운동 시도하며 꾸준히 해보기를 마음먹지만, 운동에 대한 의지는 삼일을 못 갔다. 늘 시작하고 그만두길 반복했기에 이제는 운동 장비를 사는 비용도 아깝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의지는 더더욱 없는 내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

달리기. 햇살 좋은 조용한 주말 아침, 어제 먹은 야식에 속이 부대껴 일찍 눈이 떠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도 더는 오지 않아 집 앞 카페에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라도 마시려고 밖을 나선 그날, 내 첫 달리기는 시작되었다.

체력 좋은 10대 때도 달리기는 꼴등. 어렸을 적부터 체력이 영 팽이라 마라톤 완주 같은 목표는 감히 갖지는 않았다. 그저 산책 중에 듣기 시작한 신나는 음악 리듬에 가벼운 달리기를 시작했다. 달리다가 멈추고 반복되는 후렴구에 신이 나서 달리고를 반복하니 30분 정도가 지났다. 나는 그날 아침에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것이 아닌 땀이 나는 운동을 했다는 뿌듯함에 하루를 더욱 열정적으로 보냈던 것 같다.

짧지만 강렬한 만족을 느낀 후, 가끔 아침을 달리기로 맞이했다. 그랬더니 어느샌가 이런 말들이 들려왔다. “우미씨,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아.” “얼굴색이 좋네. 뭐 좋은 일 있어?”



직장 동료들이 건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작은 변화를 짚어주고 있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즈음, 보건소에서 인바디를 재보니 지방으로만 가득했던 내 몸에 탄력과 근육들이 대체하고 있었고, 체력이 낮아 늘 피곤하기만 했던 일상에 활력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달리기에 빠져들어 갔다.



내가 사는 곳은 인천 서구 당하동. 뉴욕 센트럴파크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 한강 가까이에 살고 있지 않다. 멋들어지는 러닝 코스가 있지는 않아 집 앞 당하 공원 안쪽 왕복 1km 정도가 되는 나진포천을 따라 달리는 그 길이 내 러닝 코스다.

러닝메이트 나이키 러닝화. 함께 뛰는 러닝 크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뛰는 거리라 트렌디한 장비도 없다. 내 러닝 장비는 딱 하나, 그저 초보가 신기에 좋다는 러닝화. 그 한 켄레를 신고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여섯 달이 흘렀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달리기를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 30분보다 더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다. 날이 갈수록 내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걱정거리도 뛰는 동안 잠시 잊을 수 있었고,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문제를 더욱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매운 음식과 단 디저트로만 스트레스를 풀곤 했지만, 이제는 달리기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배도 고프지 않았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다.



이런 좋은 변화를 겪고 나니 틈틈이 달리기를 찾게 되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더 편리하게 도움을 받는 몇 가지 장비들이 생겼다. Nike Run Club 또는 런데이 앱, 러닝 밴드, 러닝화, 러닝 양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러닝화. 발의 조건과 달리는 목적에 따라 골라야 하는 러닝의 필수 장비이다. 무릎 부상과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라도 꼭 러닝화를 신고 뛰어야 한다. 러닝화도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명이 있어서 달릴 때만 신도록 하고 수명이 다한 러닝화는 아까우니 일상용으로 신도록 한다.

휴대폰과 이어폰케이스 등 작은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러닝 밴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중이다. 쏠쏠한 탄력을 가진 러닝 밴드 안에 휴대폰과 같이 꼭 지녀야 할 작은 물품을 넣고, 몸에 밀착시켜 고정하면 달릴 때 물품의 흔들거림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며 달릴 수 있다.

달리고 싶으나 달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전문적인 코치의 지도를 받는 방법이 있다. 러닝 앱을 이용하는 법이다. Nike Run Club 또는 런데이 앱을 통해 달리는 자세와 방법, 다양한 러닝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러닝메이트가 없어도 달리는 동안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는 게 은근히 도움이 되었다. 처음 사용하기 좋은 앱은 런데이를 추천한다. 인터벌 트레이닝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왕초보부터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입문하기 좋았다. 런데이를 계속 사용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과 지도를 받아보고 싶다면 나이키 런 클럽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때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꼭 챙기는 게 있다. 러닝용 양말이다. 사용해 보니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어서 달리기에 편하고 두툼해서 땀 흡수도 잘 된다. 이젠 꼭 챙기는 장비가 되었다.

아직은 달리기 초보 단계에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나를 발견하며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다. 스스로 느끼는 달리기 능력 향상과 인바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체지방률의 변화에 힘을 얻는다. 그뿐인가. 땀을 흘리고 싶을 때 나를 이기고 밖으로 나가 땀을 흘리고 나면, 오늘도 자존감이 한 뼉만큼 더 자란다.

# 승학산을 오르며



승학(乘鶴)이란,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신선(神仙)이 뒹을 이르는 말이다. 어쩌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승학산이 가정동의 북쪽에 있다. 심곡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승학산은 옆으로 있는 철마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산이다. 하지만 뒷동산에 오르듯 가볍게 등산을 할 수 있다.

승학산에 오르는 코스는 여러 개가 있다. 봉우재 공원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인천 서구의 돌레길 같은 이음길의 9코스를 택했다. 이음길 9코스 등산은 애두름 공원에서 시작된다. 등산길의 처음은 약간 가파르다.

산을 오르며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산의 정상(頂上)에는 큰 소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승학’이란 이름처럼 학이 날아와 앉아 있겠지. 학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나누어야 할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산을 오르던 마음처럼 설레며 산을 올라가 본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개울가에서 빨래하러 올 때 마다 따라와서 산에 올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하여 고모, 삼촌 등 열한 명 식구가 내놓은 빨래가 얼마큼인지 가늠할 수 없다. 다만, 한 바구니 잔뜩 머리에 이고 가는 어머니 뒤에서 졸래졸래 따라 빨래터까지 간다. 빨래터에는 맑은 물이 흘렀다. 냇물 주변에 있는 넓적한 바윗돌은 만능 빨래판이 된

다. 어머니가 빨래하는 동안 나는 산을 오른다. 산에 오르면서 듣는 어머니의 방망이 소리는 경쾌했다. 오르다가 멈춰 서서는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엄마”라고 불렀지.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뛰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아마 몸조심하라는 말이었으리라. 그때 동네 사람들은 이 산을 승학산이 아니라 북망(北望)산으로 불렀다. 산의 끝자락 북쪽 경사면에 공동묘지가 있어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어릴 때 가장 무서운 말이 북망산에 보낸다는 이웃 어른들의 겁주는 말이었다.

어머니가 두드리는 빨랫방망이 소리를 듣던 개울은 이제 없다. 버스로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로 복개되었다. 그 주변을 ‘애두름 공원’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돌레길 9코스의 시작이다. 승학산 등산로 입구에는 먼지떨이와 운동 기구도 설치되었다.

어릴 적에는 이 산에 오르며 봄에는 싱아를 쫓다. 새콤한 맛에 홀려 싱아를 캐다가 손가락을 다쳐 피가 흘러도 아프지 않았다. 한 아름 캐어 집에 오면 여동생을 놀려줄 생각에 오히려 신이 났다. 집에 와서 동생에게 많이 줄까 말까 놀리며 싸우다가 어머니에게서 회초리도 맞았다. 그런데 이 승학산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문득 박완서 작가의 소설이 떠오른다. 불법으로 조성(造成)된 농지의 감자밭에 잡

## 이항섭

초로 자랐거나, 바랭이처럼 뽀뽀버렸거나, 도로변 상가 건축물의 주춧돌 밑으로 사라졌겠지. 여름에는 아카시아꽃을 따 먹었다. 은은한 향기와 달짝지근한 맛이 기가 막혀서 끝벌에 쏘여도 울지 않았다. 배도 고팠기에 그랬을까. 승학산의 아카시아꽃은 얼마나 맛이 달콤하던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이십 분 정도 오르다 보니 숨이 가빠진다. 경사(傾斜)가 있어 힘도 들었다. 그냥 내려갈까도 싶었는데 다시 평평해진다. 승학산의 정상(頂上)에 오른 것이다. 막상 정상에 오르니 실망감도 함께 올라왔다. 어려서 올라와 꽃을 따서 먹었던 아카시아가 고목으로 뒹굴어져 썩고 있다. 역새도 한껏 자라 시야를 가렸다. 더구나 나뭇가지 틈새로 보이는 청라도 방향은 바다가 아니라 아파트단지만 그득하다. 청라도 너머의 석양은 이제 아파트 사이로 보아야 하나. 영종도 갯벌에서 잡은 게를 싣고 봉우재로 돌아왔던 돛단배들은 어디에 가서 돛을 내렸나. 신답(新沓)에 등지를 틀던 학은 날개도 잃어버렸을까. 스스로 던진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돌아서니까 50층의 고층아파트가 보인다. 아무리 고층이라지만 내려다보인다. 비로소 마음이 확 트인다. 야호! 소리쳐 본다, 비록 학이 없어 서운했지만.

등산(登山)과 하산(下山)에 전부 소요(所要)된 시간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실망하고 하산했으나, 뭔가 모르게 뿌듯하고 상쾌했다. 집안에 틀어박혀 흘러간 노래 ‘나그네 설움’을 기타로 튕기는 것보다 아름답다. 학이 날아오던 산에 올라가 보았으니,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다. 그 신선함과 아름다움을 계속 간직하려면 적어도 봄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등산해야겠다. 다음에는 꼭 아내와 함께 와야겠다. 아내와 철쭉동산의 길도 걸으며 꽃향기에 취해 봐야지. 집에서부터 걸어도 한 시간이면 족하리라.

가정동은 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루원 시티(LU 1 City)’라는 이름으로 이미 변화되었다. 도시계획을 실행하면서 승학산보다 작은 가정동의 명산 앞동산을 포크 레인으로 파냈다. 흙은 덤프에 실어 청라도 가는 길을 만들고 바다를 메꾸었다. 앞동산의 성황당(城隍堂) 고갯길 느티나무에 앉아서 졸던 부엉이는 어디로 잠자리 갔나. 산자락 샘물에서 세수하던 토끼는 큰 산에 가서 움막이라도 얻었는지. 그곳에서 “깊은 산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같은 동요는 부르고 있는지.

도시 재생 사업지구인 가정 뉴타운에는 벌써 오십 층이 넘는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 그리고 ‘아름다운 누각(樓閣)이 있는 정원, ’루원(樓苑) 시티’라고 불린다. 아무리 가정동의 가정(佳停)이란 예쁜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름이라 해도 나는 싫다. 추억의 딱지만 쉽게 또 자주 뒤집혀 진다. 그래서 승학산을 더 자주 등산하고 싶다. 특히 이유 없이 우울할 때 올라가서 신축된 고층아파트를 내려다보면 나름대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느끼지 않을까.





# 여성 혼자도 안전하게!

## 단시간에

## 맨발의 부루마블 여행



인천둘레길  
Incheon Trail

한도연

7년 전 부모님은 마지막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거주 중인 인천 서구 석남동으로 이사를 오셨다. 이 사 온 지 3년은 되었을까? 눈이 부셔서 인상을 써야 앞을 간신히 볼 수 있는 맑은 어느 날이었다. 이른 오후 뜨거운 컨테이너 안에서 회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다.

“딸! 엄마 여기에 왜 와 있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딘데?”

“집 근처인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왜 여기가 어디지.....?”

“엄마 위치가 어디인지를 자세히 말을 해줘야 찾아가지!”

당황해서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잠깐만, 물어봐!”

‘도대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갑자기 어디를 가셨기에 자신이 어디를 간지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는 걸까?’ 갑자기 정수리 주변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마치 뜨거운 라면이 끓어 외부에 찬 기운과 맞닿아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말이다. 땀이 1cm나 흘렀을까.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딸, 엄마 집에 잘 들어왔어!”

“집에 들어갔어? 그럼, 다행이고, 아까는 무슨 말이었어?”

“엄마가 길에서 왜 거기에 갔는지, 거기가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

“뭐? 우선 이따 저녁에 이야기하자. 퇴근하고 집으로 갈게.”

엄마의 길 잃은 사건이 한번에서 두 번, 두 번에서 세 번 되었을까. 세상 치매에 관한 정보는 다 알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검색의 신이 된 듯 검색하고 또 하게 되었다. 그렇게 찾은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예약과 동시에 무료로 1차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았다. 나는 서구치매안심센터를 예약한 후 방문했다.

방문하는 날, 지하 주차장에서 5층까지 엘리베이터 안은 마치 끝이 없는 동굴 속으로 가는 것만 같았다. 설마를 속으로는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르겠다. 1차 치매 검사를 한 후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다. 설마가 사실로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직원들의 친절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면서 인천 서구 나은 병원으로 바로 예약 후 뇌 MRI까지 검사하게 되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초기 치매로 나왔고, 바로 그날로부터 약을 처방받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다. 엄마가 길을 잃은 사건이 있을 때쯤 나도 둘에서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 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 서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치매 수업에 엄마를 함께 모시고 다니게 되었다. 시간이 점차 흐르자, 엄마는 안정을 조금씩 찾게 되었다. 어느덧 나는 엄마의 가족 요양보호사로 3년이 되어 가는 듯하다.

“엄마, 우리 같이 산책하러 가자.”

“힘들어.”

“엄마, 여기 집 앞 서부여성회관에 수영장 있지? 거기서 걷기 운동하는 수업이 있대네. 우리 같이 그 수업 들어보자.”

“싫다. 거기 수영장 물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니?”

엄마의 단호한 대답은 늘어가고, 엄마는 외출이 점점 줄어들었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듯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무릎이 닳고 닳았다. 2층짜리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조차 무릎에 못을 대고 망치로 두드리는 것마냥 아프다 하시며 힘들어하셨다. 그렇게 엄마는 외출하기를 두려워하셨다.

그 무렵 회사에서 기간 근로 계약직이 끝난 나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잠자는 시간 외에도 대부분 시간을 내 방에서 지내게 되자, 스스로 만든 감옥과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무의미한 시간이 커져이 쌓여만 갔다. 내게도 무기력이라는 손님이 찾아온 것이다. 독백의 시간과 공간이 늘어 갔다.



‘나는 이직을 포기했다.’  
‘혹시 이직을 준비하는 척하는 여성은 아닐까?’  
‘엄마가 우선이지!’  
‘이직해야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20년 동안 일했으니 이번 기회에 나에게도 엄마와 함께 쉼을 주자!’  
‘너 솔직히 이직 포기하고 싶지?’  
마음속으로 맴맴 말해보기도 하고, 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퇴직하고 싶었다. 뇌조차 비우고 싶은 순간이 온 것이다. 그렇게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고,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면 그 곳으로 옮겨가고 싶었다. 집은 이제 혼자 만들어 낸 독백의 감옥이 되어 버렸다.

침대에서 3주쯤 맴돌던 어느 날, 어쩌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싶다. 여길 탈출하고 싶어.’  
움직이고 싶었다. 무작정 산속, 안전한 곳, 여자 혼자만의 운동 공간을 찾아 간추리고 집 근처 원적산 둘레길을 향해 2층 계단을 내려와 시커먼 아스팔트 밟았다.  
“오늘은 내가 알고 있는 원적산 둘레길까지만 가보자!”  
이렇게 시작된 발걸음이었다.



이쭈시개처럼 얇은 소나무잎은 무성하여 그늘만 가도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는 있었고, 들숨에 순식간에 산속 피톤치드 향기가 콧속으로 들어왔다. 덕분에 마음마저 흐린 날에서 맑게 갠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듯했다.  
‘벌써 숨이 차다니 체력이 제로가 되었구나.’ 헛웃음이 나왔다. 그때 산속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꽃들이 어쩜 이리도 피어 있네. 작지만 예쁘다.”

어느덧 내게 낯선 길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 오늘은 이 길도 가 보자!’  
산속 꽃들이 날 환영해 주는 것 같았고, 등 쪽 옷이 땀으로 내 등살과 찰싹 붙게 되어 버린 지 40분가량 되고 있었다.  
‘사탕이라도 주머니에 넣어서 올걸!’  
‘그래 이제 집으로 하산하자.’



돌아가기로 한 마음을 먹은 순간, 우연히 약수터를 발견하였다. 약수터 앞에서 70대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은 플라스틱 생수통에 물을 받으면서 줄을 서 계셨다.  
“안녕하세요, 여기 물 먹어도 되나요?”  
“그럼 먹어도 돼요.”  
최대한 상냥하게 말투로 질문을 하면서도 내 눈동자는 불안감에 수질 확인서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산을 사십 분가량 헤매던 탓인지 식도에서 물을 찾는 간절함이 앞서서 두 어르신을 믿어보기로 하고, 나는 한 모금 정도 물을 마셨다.  
“설탕도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좋다고 하지 않았나?”  
마시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서 마구 혼자만의 질문을 돌림노래처럼 불렀다. 물 한 모금이 중력에 의해 내 식도로 순식간에 넘어갔다. 그 순간 불안감은 사라지고, ‘아, 이제 살 것 같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감사함이 일었다. 변덕이 어쩜 이리 빠른지. 오른쪽을 바라보던 내 두 눈에 ‘식수금지’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조금 먹기를 잘했다며 스스로 위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이 시작된 지 3분 지났을까. 석남 3동 약수터 간판이 눈앞에 띄하니 서 있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생긴 것처럼 작지도 않은 간판인데 바로 옆에는 수질 안심 적합서 내용도 함께 말이다.  
‘아! 내가 마신 물은 그럼 비정상 약수터란 말인가? 내 몸속은 괜찮을까?’  
그래도 안전한 물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우선 집 근처에서 정식 약수터를 찾은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혼자서 말 많은 동네 아줌마처럼 떠들면서 다시 하산의 길로 향하였다.

그때 기분은 마치 부루마블 게임 중 비싼 토지를 구매한 기분이었다. 부루마블은 2~4인용 보드게임인데 주사위 굴려서 지역 이름이 깔린 사각형 보드에서 토지를 구매하고 한 바퀴 돌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이때 상대 토지에 걸릴 시 토지 비용 지급해야 한다.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라는 이벤트용 카드, 시작점 도착 시, 돈 받기, 상대를 파산시키는 승리 조건 등이 있는 게임이다.





마치 진짜 토지를 구매하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처럼 뿌듯한 하산의 길이었다. 마음이 편안해서 인지 주변에 설 수 있는 정자, 운동 기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돗가, 전화 박스 안에 책들이 꽂혀 있는 미니 도서관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정식 석남 약수터 입구 쪽으로 가까워지니 테니스장, 농구장, 석곶 체육관이 줄줄이 나왔다.

내 목표는 단순히 ‘무작정 둘레길을 걷자’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루마블 게임판 위에 있는 토지를 찾고 구매하듯 둘레길을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집에 도착하였다. 게임에서 1등을 해서 큰 상금을 받은 것처럼,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흥분과 기쁨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어느덧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발을 내딛기 전, 1층에서부터 “엄마, 엄마”라고 집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여기 바로 앞에 원적산 있지? 거기에 약수터를 발견했어! 많이 걷지 않아도 돼. 차 가지고 가면 주차하고 바로 앞쪽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엄마는 내 이야기와 흥분한 목소리에 궁금증을 가지게 된 듯했다. “그래 내일 같이 가자.” 그 당시 엄마는 3주 동안 두문불출했던 딸이 외출했다가 신이 나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분명 호기심이 생겼을 것이다.

바로 다음 날, 날씨는 맑았다. 점심을 먹고 우린 차를 가지고 석남3동 약수터로 향하였다. 차로 5분이면 도착하는 원적산의 약수터 시작의 길인데 걸어서는 왜 이 길을 이리 오기 힘들다고 생각했을까. 날씨가 맑으니 기분 또한 좋았고, 새로운 곳에 엄마도 발길을 함께해서 기뻐다. 주차 후 100M쯤에 걸어갔을까. “엄마 맨발로 걷고 여기서 씻어도 되고, 약수

터 가서 물먹고 씻어도 돼. 엄마 어떻게 하고 싶어?” “멀지 않으면 더 올라가서 약수터를 우선 가보자.” “그래.” 우린 맨발 코스를 지나서 약수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운동 기구를 지나고, 책이 놓여있는 전화부스도 지나고, 약수터에 도착해서 물 한 모금 마시게 되었다. “인천에도 이런 곳이 있네.” “공기가 여기만 와도 다르네.” “엄마, 물맛 괜찮아?” “음. 좋네!” 우리는 약수로 한 모금을 채운 뒤 바로 맨발로 걷는 코스로 다시 향하였다. 도착하니 이미 어르신 두 분께서 신발을 한쪽 의자 밑에 두고 맨발로 산속을 돌고 계셨다. 맨발로 걷는 코스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모래알이 적어 바닥이 진흙으로 축축하게 걷기 좋은 곳 모두 맨발 코스인듯했다. 맨발로 두어 바퀴는 걸었을까.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다.

주변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숲에서 풍기는 향기를 더욱 깊게 마셔 볼 수 있었다. “엄마, 여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문경새재 같지?” “그러게. 느낌이 비슷하네.” “나 다시 문경새재 가고 싶었는데 여기가 그곳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기쁘고 좋더라고.” “엄마, 확실히 신발 벗고 걸어보니 발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지?” ”잠도 잘 오고, 기분이 좋아지니 생활에 힘도 생기고 집 앞에 공짜 카페가 하나 생긴 것 같지?“ 난 또 갑자기 수다쟁이가 된듯했다. 석남3동 약수터는 간식만 챙겨오면 운동, 명상, 독서, 낮잠도 휴식을 모두 할 수 있다. 비싼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공간을 내어주는 것 같았다.

석남3동 약수터는 믿음을 주는 곳, 힘을 주는 곳, 의지를 주는 곳, 휴식처를 주는 곳, 추억을 주는

곳, 혼자 올 수 있는 곳, 건강을 주는 곳, 마음이 힘든 것도 몸이 힘들어도 잊게 해주는 곳, 드디어 여자 혼자 와도 안전한 곳으로 여겨진다. 처음부터 석남 약수터를 여자 혼자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든 건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지인들에게 나만이 찾은 부루마블이라 말하고 싶다. 그리고 또 찾아나가고 싶었다. 석남3동 약수터로 나만의 부루마블 더 찾기 부심이 어느덧 생긴 것 같다. 무언가 더 해보고 싶다. 그 자체만으로도 석남3동 약수터에 더욱 감사하다. 이제는 석남 3동 약수터는 나에게 단순한 약수터가 아니다. 새로운 안식처가 되어 준 인천에 있는 또 하나의 추억 공간이 되었다. 그대도 그대만의 부루마블을 찾아서 떠나보는 건 어떨지….

### 석남3동 원적산 약수터 가면 꼭 맛봐야 할 리스트

- 원적산 둘레길 맛보기
- 약수터 맛보기
- 운동 기구 해보기
- 맨발로 걷고 흙 묻은 발을 돌에 얹아 물에 씻어보기
- 눈 감고 5초 물 흐르는 소리 맛보기
- 챙겨간 간식 맛보기
- 자신만의 부루마블 공간 찾아보기
- 다양한 색깔 꽃, 열매들 찾아보기
- 출구에서 운동화에 묻은 흙 털어내는 기계 맛보기
- 석곶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농구도 해보기





당하공원 나진포천  
함께 살아온 나무  
쉬어가세요  
마음의 쉼터  
빛나는 나를 만나보는 곳  
나의 '서'적인 공간





# 당하공원 나진포천

박성은



녹지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아파트와 빌라로 둘러싸인 이 작은 하천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15분 정도가 걸린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걷고, 누군가는 함께 걸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스러운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즐긴다. 걷는 것 자체에 기쁨을 더해 주는 이 작은 자연 공간이 나에게만 참 소중하고, 무척이나 고맙다.





# 함께 살아온 나무

## 이미희



서구에 살면서도 늘 같은 공간에 있던  
회화나무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래전  
부터 이곳을 지켜왔다고 나에게 말해  
주는 것만 같다. 긴 세월을 견뎌온 이  
나무에게 인사하고 싶다.  
"함께 있어주어서 감사합니다."





# 쉬어가세요

이수진



석남동 거북시장으로 가는 길에 빗바  
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손수레를 곁에  
두고 오래된 빌라 앞에 앉아 쉬고 있  
었다. 그 빌라와 나무는 마치 그들과  
쉼터를 내어주며 나에게도 “잠시 쉬  
어가세요” 하고 속삭이는 듯했다. 잘  
정돈된 도심의 벤치보다 이렇게 세월  
의 흔적이 묻어 있는 장소가 더 깊은  
휴식을 주는 것 같다.





# 마음의 쉼터

양철민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작은 동산을 바라보는 카페. 이곳에서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즐기곤 한다. '서적인' 이 공간 덕분에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END OF THE VILLAGE



2024. 11. 02  
Yang Chul Min



# 빛나는 나를 만나보는 곳

이재경



‘서’적인 공간이란,  
나에게 햇살이 되어주는 곳,  
빛나는 나를 만나보는 곳,  
나와 세상에 조금 더 다정해지는 곳.



Happy smile  
2024. Fall



# 나의 '새'책인 공간

김현주



아이들이 반려견 백구와 함께 작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5월이면 빨간  
장미가 담장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석류가 익어가던,  
그곳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고향처럼 따뜻한 나의 '서적인' 공간.










동네친구 : '개'찍인 매거진

발행일	2024년 12월 6일
주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cc.kr
기획총괄	서덕현
기획운영	김영준, 이선미
집필	<우리동네 또간집> 김영창, 김예은, 야마다 다카코, 이진형 <운동네> 김경욱, 김영신, 김하영, 김혜영, 도우미, 이창섭, 한도연
그림	<숨은 동네 찾기> 김현주, 박성은, 양철민, 이미희, 이수진, 이재경
윤문	최리나
그림도움	홍우희, 노희주

본 매거진은 2024. 서구 기록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자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게 있으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 서구 기록사업

# 동네친구: '재'찍인 매거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